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ㄴ(가) …… ‘부캐’ 전성시대 …… (나)ㄹ

부캐는 부(副)캐릭터의 줄임말로, 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 계정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가진 캐릭터를 ‘본(本)캐’라 하면, 본캐 이외의 다른 캐릭터가 부캐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2020년 소비 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다중적 자아를 뜻하는 ‘멀티 페르소나’를 제시했다. 출근과 퇴근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인격의 페르소나(分身)를 투영하는 현상이다. 시대 변화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실패는 두려워 부캐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중략} 인스타그램에 부캐를 해시태그(#)한 게시물은 4000여 개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공적 부캐 활동을 마친 신○○(34) ○○법원 판사를 6월 26일 서울 이촌동에서 만났다.

‘판사’하면 떠오르는 게 법복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 엄중한 모습이지만, 6월 20일 강릉 ○○리조트에서 신 판사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는 수영복을 입고 무대에서 근육을 뽐내기 바빴다. 신 판사는 100일간의 노력 끝에 ‘피트니스모델’이라는 부캐로 피트니스 스타 강릉 대회에 출전해 피트니스모델 3위, 노비스 스포츠모델 5위, 애슬레틱 모델 6위를 수상했다. 파격적인 부캐 도전을 한 셈이다.

신 판사는 아주 높은 순위가 아니어도 성공적 부캐 활동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캐로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걸 ‘부캐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보다 부캐를 통해 다시 본캐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진정한 부캐의 성공이라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본캐인 법원 업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대회를 통해 얻은 성취감으로 까다로운 사건은 물론 무슨 일이든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취감·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중략}

판사가 피트니스대회에 참여하는 게 이례적이다.
 “주최 측에서 변호사가 아닌 현직 판사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같이 무대에 오른 선수 대부분이 나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체육 전공자 또는 트레이너가 많았다.”

왜 부캐를 만들고 싶었는가.
 “대학 입학 후 판사 임관, 판사 임관 후 법원 생활 그리고 결혼, 결혼 후 남편과 아이 둘의 아버로서의 가정생활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빨리 본캐를 형성했지만, ‘내가 공부나 업무 이외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도전했다.”

신 판사는 2008년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만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40기)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현재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 28세에 판사로 임관된 것. 그는 2015년 MBC 김초롱 아나운서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
 “운동이 직업이 아니다 보니 본캐와 부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시간 관리가 가장 힘들었다. 피트니스대회를 준비한다고 본업에 충실하지 않거나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회를 준비한 100일간은 정말 고3 수험생, 사시 2차 시험을 앞둔 고시생처럼 시간 단위로 생활을 관리하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사건이 몰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을 쪼개 틈틈이 운동하고, 몸이 피곤해도 본업을 할 때는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려 했다. 물론 정해진 식단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다.” {중략}

부캐 활동이 본캐에 미치는 영향은.
 “부캐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에너지를 본캐에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캐는 본캐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많다. 물론 자칫 본캐에 소홀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하지만 ‘부캐는 어디까지나 부캐’라는 생각을 명심하며 적정 수준의 부캐 생활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예비 부캐 도전자에게 한마디.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다. 나도 모르고 살았던 내 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C신문, 2020-07-29)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다가 퇴근하는 순간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나’ 그리고 ‘SNS상의 나’가 다르듯 말이죠. “또 다른 자아를 인정하고 즐기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캐릭터’ 줄여서 ‘부캐’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은 ○○연구소 전○○ 팀장님과 함께 부캐에 담긴 현상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요즘 방송가에 핫이슈라고 하는데 부캐. 사실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까요.

용어 자체는 온라인 게임에서 탄생했습니다. 본인이 게임하는 본래 캐릭터를 ‘본캐’라고 하고요, 더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서 두 번째 캐릭터를 만들어 하던 게 부캐였어요.

‘부수입’할 때 쓰는 접사 ‘부(副)-’가 붙은 거죠.

맞습니다. 최근 부캐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건 유재석 씨 때문입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역할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거든요. 프로그램 안에서만 캐릭터가 6개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트로트 부르는 유재석 씨, ‘유산술’이라는 캐릭터죠. 최근에는 이효리 씨, 비 씨와 함께 ‘유두래곤’이라 해서 90년대 가요 스타로 또 변장을 했거든요. 이런 캐릭터들을 시청자들이 있는 그대로 봐 주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재석 씨는 데뷔 29년차인데 연말에 신인상을 수상했던 말이죠. 이것도 결국은 유산술이라는 부캐 덕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보면 뽀뽀 티 나게 변장들을 하세요. 팬들은 알고도 속아주는 거고요. {중략} 이런 것도 보니까 나도 한번 부캐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도 이런 부캐를 만드는 사례가 있나요?

하죠. 직업적으로 의사이면서 퇴근 후에는 셰프로 탈바꿈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지만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자료화면을 쬐으며) 부캐의 연관검색어 보시면 ‘캐릭터’라는 단어가 가장 부각되어 보이는데 직업 외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부캐와 관련한 언급량이 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년간 언급량이 22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부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며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걸 보여주고요. 연관검색어로 김신영 씨, 유재석 씨도 보이고…… ‘매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부캐를 보니까, 그리고 해 보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미리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0트렌드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였어요. 관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자아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회사 안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나, 집에 돌아오면 집 안에서의 내가 있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로서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걸 보면서 이거 이중인격 아니야? 다중인격 아니야? 마치 지킬 앤 하이드 박사 보듯 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나의 다양한 모습을 굉장히 스텝 없이 드러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변한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거에는 ‘사람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이 다변화하고 급변하다보니 ‘나’라는 존재를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방송에서 선보이는 부캐한테도 애정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소비자는 한 명이 아니라 0.1명 단위로 세분화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의 세분화 된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제품을 내놔야 된다는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일관된 구매자가 아니에요. {중략} ‘이 동네는 중산층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가성비 제품으로 공략하자.’ 같은 싸잡아 식, 주먹구구 식 접근은 먹히지가 않는 거죠. {중략}

그런데 여러 ‘나’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진짜 나다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BTS가 부른 ‘페르소나’도 그런 가사였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원래의 나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주의해야겠죠. {이하 생략}

(K방송, 2020-07-29)

1. (가)~(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멀티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가)의 인터뷰 대상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캐의 성공'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 담임선생님(또는 주위의 다른 어른)의 부캐를 추천한다고 할 때,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을 떠올려 보고, 그 부캐가 어떤 점에서 그 어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포인트

- ① **성숙한 세계 인식:** '내가 주인공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 조력자 아니면 걸림돌'이라는 소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사람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와 삶이 있는 어엿한 인격체'라는 성년기적 사고에 도달한 학생인가.
- ② **관심과 관찰력:** K대 간호학과 전공기초 '전인적 돌봄과 치유'에서 한 번은 시험 마지막 문제로 "강의실을 청소해주는 여사님의 이름을 쓰시오."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공동체(이웃·급우 등)에게 이해관계 외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나?
- ③ **참신함**
- ④ **설득력·전달력·표현력**

4.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의 나이는 19세 전후이다. 이후 대학생활 약 4년, 군복무 약 2년, 구직활동(고시·공시 공부/유학·어학연수/인턴 등) 약 2년, 첫 직장(직업)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약 3년을 보낸다고 치면, 여러분의 나이는 30세쯤이다. 30세가 되었을 때 나의 본캐와 부캐의 모습을 상상하여 서술하시오.

<p>〈본캐〉</p> <hr/> <hr/>	<p>〈부캐〉</p> <hr/> <hr/>
-------------------------	-------------------------

※ 생기부 기재 포인트 ① **성숙한 진로의식**(입체적·다원적 진로설계) ② **자기이해** ③ **직업세계 이해** ④ **상상력·표현력**

5. 현재(2019~2020년) '부캐놀이'가 트렌드인 것과 달리, 불과 얼마 전(2017~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덕업일치(본인의 애호와 직무가 일치하는 것)'가 트렌드였다. 둘 중 더 마음에 드는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점검일: 2020년 ___월 ___일 담임교사: _____ (서명)

1. (가)~(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멀티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예시 답) 다양한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인격(스타일, 캐릭터성)을 지닌 페르소나(모습,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의 인터뷰 대상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캐의 성공**’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예시 답) 본캐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활력소와 에너지를 얻는 것을 진정한 부캐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3. **담임선생님(또는 주위의 다른 어른)의 부캐를 추천한다고 할 때,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을 떠올려 보고, 그 부캐가 어떤 점에서 그 어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예시) 000교장 선생님의 부캐로 래퍼를 추천하고 싶다. 재치와 흥이 있으시며 교감을 잘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고모부의 부캐로 미술 큐레이션 유튜버를 추천하고 싶다. 상식과 미술 분야 교양이 풍부하시고 목소리 톤도 좋기 때문이다.

4.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의 나이는 **19세** 전후이다. 이후 대학생활 약 **4년**, 군복무 약 **2년**, 구직활동(고시·공시 공부/유학·어학연수/인턴 등) 약 **2년**, 첫 직장(직업)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약 **3년**을 보낸다고 치면, 여러분의 나이는 **30세**쯤이다. **30세가 되었을 때 나의 본캐와 부캐의 모습을 상상하여** 서술하시오.

(예시) 남들 군복무, 구직활동 할 때 수련의 4년을 마치고
한 의사전문의가 되어 군의관으로 복무중이다. 한방군의관이라
야간당직 없고 집근처 국군수도병원에 정시출근·정시퇴근 한다.

(예시) 우리 동네 E-sport팀의 구단주 겸 감독. 중·고등학생
에서부터 정년퇴직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희망자를 모아서
전국스포츠클럽대회, 동네PC방배대회, WCG 등에 나가고 있다.

5. 현재(2019~2020년) ‘**부캐놀이**’가 트렌드인 것과 달리, 불과 얼마 전(2017~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덕업일치**(본인의 애호와 직무가 일치하는 것)’가 트렌드였다. 둘 중 더 마음에 드는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예시 답) "천문학은 천문학자가 아닐 때 훨씬 더 재미있지." -브라이언 메이, "프로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날에 하는 것을 말한다." -줄리어스 어빙 등의 어록을 떠올려보면 부캐놀이에 더 마음이 간다.

(예시 답) 성공한 프로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의 덕후였다. 쿠엔틴 타란티노, 안노 히데아키, 김윤, 신해철, 지코, 존 레논 등이 대표적이다. 원래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이 나오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덕업일치에 더 마음이 간다.

※ 읽기자료 원문 출처

(가) “부캐로 얻은 성취감, 본캐는 물론 삶의 자신감도 향상” 조선비즈(2020-07-29)	(나) “또 다른 나” ... 부캐 전성시대 KBS2TV 통합뉴스룸ET(2020-07-29)	(더 읽고 싶은 학생용) [이향규 칼럼 - 시험과 답] 덕업일치의 어려움 한겨레21(2020-07-16)
		